

## 유훈(遺訓)의 섭정체 - 최인훈 연작 「총독의 소리」를 매개로 -

윤인로\*\*

### I. 지배의 '신성한 빛(御光)': 권위에 접근하는 최단거리의 문제

1945년 8월 15일 도둑과도 같이 찾아온 해방 이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식민지 한반도의 지하로 숨어든 조선총독. 그 지하에서 유명라디오 방송

---

\* 세 분 심사자의 논평에 감사드린다. 첫 번째 심사자의 말, “소설은 허구의 창작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두 번째 심사자의 말, “「총독의 소리」를 매개하는 방식의 한계 혹은 오해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이 글을 짜나감에 있어 매개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인훈의 소설과 여러 분석대상들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한 정당한 이의제기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다만, 이 글의 입론은 연작 「총독의 소리」가 단선적인 픽션에만 머물지 않는 텍스트라는 점,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구체적 정세에 개입하기 위한 텍스트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해 놓게 된다. 다시 말해, 이 글은 「총독의 소리」가 “적의 입을 빌려 우리를 깨우치는 형식, 곧 빙적이야(憑敵利我)[최인훈(2010),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서울: 문화과지성사, 27]의 의도 아래 작성된 정치적 텍스트라는 점을 중시하며, 그 정치적인 것의 성분과 함량을 여러 다른 텍스트들을 매개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의 전파를 통해 제국=신국의 부활을 위한, “아제국의 神國[신국] 입과 이민족의 臣民[신민] 입에 대한 종족적 환상”<sup>1)</sup>의 재생산을 위한 경륜을 설파하는 “제정 일치론자” 총독. 그 경륜의 핵심에는 통치와 비밀의 적절한 조합이 있었다. “무릇 국가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반도의 영유는 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종족의 성감대였습니다.”<sup>2)</sup> 작가 최인훈에 의해 구성되고 있는 총독의 비밀화된 경륜, 이른바 ‘통치비밀[아르카나 임페리]’ 속에서 전개되는 제정일치론·천황론은 6·25 월남 작가로서의 최인훈이 총독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는 북한 체제의 고유한 특질 개념, 곧 “김일성 천황”이라는 체제의 이름을 통해 정치적 실제성을 획득하는바, 이 글이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이다. 유명방송을 타고 전파되는 총독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다. “김일성 천황의 체제는 우리 제국의 국체를 작은 규모에서 본뜨고 있는 象徴的天皇制[상징적 천황제]로서의 내실을 더욱 굳혀 가고 있으므로, 제국으로서는 행여 김일성체제에 변화가 오는 일이 없도록 깊은 배려[사려(思慮)]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sup>3)</sup> 패전한 제국 일본의 국체를 ‘본本’으로 삼아 그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한반도의 북쪽, 그것은 총독의 전후 인식에 있어 근간이 되는 정세 판단이며, 그것은 「총독의 소리」 자체가 1965년 한일협정의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된 텍스트인 만큼, 당대적 현실과의 비교를 거듭 요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 
- 1) 최인훈 (1976). 總督의 소리 IV, 한국문학, 172. 이 초판본은 전면 한자표기로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 한자어를 살려 인용할 때는 ‘[ ]’ 속에 한글을 함께 표기함.
  - 2) 최인훈 (1967). 總督의 소리, 신동아, 480. 이하 ‘총독의 소리 I’로 표기함.
  - 3) 최인훈 (1976). 총독의 소리 IV, 194.
  - 4) 그런 맥락에서 「총독의 소리」 연작이 보여주는 의미의 갈래 혹은 분포를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총독의 신화적·역사적 정치종교론 속에 총독의 패전론·북한론·혁명론을 배치하고 그런 배치와 직결된 정치적 관점들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선행연구에 의미의 접선 하나를 덧붙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보드래 (2012).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 261-313; 연남경 (2015). 냉전 체제를 사유하는 방식: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3, 47-76; 구재진 (2004).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전략과 탈식민성: 「총독의 소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3, 157-180. 최인훈 문학의 동아시아 표상 혹은 재현에 초점을 맞춘 망라적 연구로는 장문석 (2018).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서울대 박사는 문을 참조. 식민지 시기 조선총독의 통치에 관한 역사학에서의 분석으로는 전상숙 (2005). 식

그런 비교를 위한 출발점은 제국 일본의 신화-정치적 구심점이 되고 있는 천황에 대한 인식이 될 것이다. 최인훈의 총독이 말하는 천황, 그 천황의 계보가 집약된 황실은 “황실의 무궁한 성총”이라는 구문으로 집약되는바, 그것은 신민을 구제하는 은총의 빛인 동시에 지존의 빛으로, “어광御光[고코, 다스리는 빛(빛으로 다스림)]” 혹은 “영광”<sup>5)</sup>으로 발현하는 것이었다. 이와 견주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천황의 그 신성한 빛을 받고 있는 제국 신민 한 사람의 말을 살펴 들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내각 수상이자 행정부 일반의 수반이고 군부 대본영의 수장인 도조 히데키의 말, 그가 중의원 <전시행정특별법 위원회>에서 행한 독재 관련 발언을, 그 발언이 마루야마 마사오의 「초국기주의의 논리와 심리」 속에 인용되고 있는 지점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용된 도조의 그 말이 천황(황실)의 신적인 빛으로 합성되는 정치의 시공간을, 그 후광後光[고코(‘御光’과 동일 발음)] 속에서 편성되는 통치관계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독재정치라는 것이 곧잘 이야기되곤 하는데, 그것에 대해 명확히 해놓고자 한다. [...] 여기 도조라는 자는 일개 지푸라기草芥 같은 신하일 따름이다. 여러분들과 하나도 다를 건 없다. 다만 내게는 총리대신이라는 직책이 부여되어 있고, 그 점에서 다른 것인데, 이는 폐하의 고코御光[신성한 다스림의 빛]를 받고서야 비로소 빛나는 것으로서, 폐하의 고코가 없었다면 나는 돌맹이와도 같은 터이다. 폐하의 고신닌御信任[신성한/높으신 신임]으로 이 위치에 붙어있기에 그렇게 빛나는 것인바, 이는 유럽의 여러 공인들이 소위 독재자라고 칭하는 것과는 뜻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sup>6)</sup>

이 발언은 행정부 수반 도조의 ‘지시권’을 ‘독재’로 명명하려는 어떤 의원에 대한 응답이었다. 천황의 빛=신임, 지존의 그 상위적 빛光은 아래쪽 위계·서열 각각에 걸맞은 믿음信과 그에 따른 직능의 담임任으로 내려지는

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정치적 자율성’. 일본연구논총 21, 281-310을 참조

5) 최인훈 (1976). 총독의 소리 IV, 177.

6) 東條英機 (1943). 第81回議會衆議院戰時行政特別法委員會 發言, 1943. 2. 6. 朝日新聞 速記  
丸山眞男 (1946). 超國家主義の論理と心理, 東京: 世界 5号, 12-13에서 재인용(읽점 강조는 마루야마, 고덕 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함).

밝은 성충이다. 그 빛=신임 속에서 각각의 자리는 달리 부여되면서도 피라미드처럼 안정화되는바, 그 각각의 자리들은 그런 수직적 정통성의 레벨로부터 유출되는 것인 한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빛난다. 반대로 천황·황실의 무궁한 성충, 그 지존의 빛=신임이 내려가 닿지 않는 모든 것은 ‘돌멩이’ 즉 단순한/무미건조한 사물[“모노(モノ)”]로 머문다. 그러므로 통치관계의 구성에 있어 관건은 다음과 같다. 그 빛의 가닿음이란 어떤 상태인가, 누가/무엇이 그 빛에 가닿을 수 있는가. 달리 반복하자면, 평상시가 된 전시상태에서의 ‘특례’—이것의 기원에 있는 것은 「메이지 헌법」의 발효와 정치 모두에 필요조건이 되는 중심해석, 즉 조선통감이자 추밀원 비밀의 결정자였던(그런 한에서 총독의 전임자이자 모델일 수도 있을) 이토 히로부미의 “제-외-례”이다<sup>7)</sup>—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어 관건은 다음과 같다. 무한한 성충, 그 끝없는 수직적 종축·중심 기동으로서의 정통성 레벨에 접선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이와 관련하여 한 대목을 인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불행은 각각의 과두세력이 피규정적<sup>被規定的</sup> 의식만을 가진 개인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과두세력 자체가 궁극적 권력이 되지 못한 채 궁극적 실체를 향한 의존[“상급가치로의 순차적 의존의 체계”] 아래에 있다는 것, 더군다나 과두세력 제각각이 그런 실체로의 근접을 주장하면서 공존하고 있는 사태—어느 독일인이 말했던 이른바 Das Land der Nebeneinander[병치(並置)의 나라]—가 주체적 책임의식의 성립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인해 배가된다. [...] 더 상급자인 존재(따라서 궁극적 가치 [“궁극적 권위”]에 더 가까운 자에 의해 규정받게 됨으로써, 독재 관념을 대신 하는, 억압의 이양에 의한 정신적 균형의 유지라고도 해야 할 현상이 발생

7) 伊藤博文(1889). 帝國憲法義解, 東京: 國家學會, 11. 이 한자 조어는 「메이지 헌법」 제8조——“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또는 재액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 회가 폐회된 경우에,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에 대한 이토 히로부미의 해석으로서, 천황의 권위를 중심에 둔 정치체제론에 유명처럼 어른거리는/들러붙어있는 법 효력정지의 폭력을 표시한다: “이 제8조를 통해 칙령으로써 법률을 대신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긴급시 緊急時機로 인한 제-외-례<sup>除-外-例</sup>를 표시한다. 이를 긴급명령의 권한이라고 한다.”(伊藤博文(1889), 11)

하는 것이다.<sup>8)</sup>

궁극적인 실체·가치·권위·권력, 그 지존의 빛=신임을 향한 의존, 그 무한한 성총의 내역들에 의해 받게 되는 규정들. 그 성총 아래에 있는 것은 궁극의 상위심급에 다가가는 무한한 ‘근접’ 혹은 접근<sup>access</sup>의 과정이며, 위를 향한 중첩된 의존상태와 아래로의 중층적인 피규정상태를 기반으로 삼아 운용되는 간접권력적 무책임의 체제이다. ‘병치된 나라’로서의 일본이라고 할 때의 그 병치란 특정한 배치상태를, 소수의 후견과 간섭의 정치·섭정에 따라 구축되는 균형적 질서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천황이 체화·육화하고 있는 궁극적 실체·가치로서의 정통성 레벨에 최대한 근접해 있다는 것, 그 레벨에 최단거리로 가까이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 레벨을 경계해 체적인 힘으로, 公公/사私 및 법의 안/밖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는 재량적인 폭(권·위)력일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하되 궁극적인 권위와 그것에 의해 보장되는 권력이라는 것, 그런 힘의 절대적 관계형질이란 일본 정치의 저류 속에서 용해되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바, 만약 그것이 궁극적인 실체·가치로서 존재하는 힘이라면 그 힘은 위키시·비상시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대화된 형질을 띠게 될 것이었다. 그런 한에서 가능한 것, 허용되고 또 필요해지는 것이 무궁한 상위자로의 근접, 무한정한 상급심급으로의 소급이다. 다름 아닌 무궁극성·무한성의 규정 안에서만 궁극적인 것을 향해 접근해 갈 수 있으며, 그런 거리 좁힘, 그 가깝고 멀이라는 근접-거리에 따라서만 힘의 위계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문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질서의 주재자를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최단거리의 액세스 경로를 차지한 자, 정통성 레벨의 문고리에 손이 닿을 수 있는 통로와 앞방 *vorraum*[대기실]의 독점자. 달리 말해 이미 과두라거나 독재자의 이름을 벗어던

8) 丸山眞男 (1946). 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 12; 13. 노출된 독일어 구절은 오스트리아 태생의 작가·저널리스트·여행가 엘리스 샬렉의 여행기에서 비롯된 것임. Alice Schalek (1925). Japan, das Land des Nebeneinander. Eine Winterreise durch Japan, Korea und die Mandschurei[일본, 병치의 나라: 일본, 한국, 만주를 가로지르는 겨울여행]. Breslau: Ferdinand Hirt.

진, 결정 레벨과 정통성 레벨 간의 이접<sup>離接</sup>운동에 관한 실제적 총괄자. 그런 이접운동의 통괄 속에서, ‘제각각으로 하여금 그에 걸맞는 자리가 잡히도록 한다.’<sup>9)</sup>는 천황제 피라미드의 신화적 이데올로기란, 혹은 그 제각각의 자리·토포스들을 비추는 지존의 빛=신임이란, 액세스의 최단거리라는 간접권력적 투쟁과 담합의 매개공간에 따라 항시 위계가 재생산되게 하는 경로의존 상태를 분만한다. 저 ‘억압의 이양’이라는 간접권력적 매개·섭정의 하향적인 경로·통로는 체제의 각 층위 구성원들이 정신적인 균형을 잡게 하고, 나아가 체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광역질서의 창출이라는 맥락에서는 세계상<sup>像</sup>의 질서화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제국 운용론의 근본장소가 된다.

## II. 유훈의 국상정치: “김일성 천황”이라는 관점

천황의 그같은 빛=신임<sup>[고코=고신닌]</sup>, 그 무궁극적인 성총·권위·정통성 레벨을 향한 근접-거리라는 통치관계의 문제, 비독재적인·비과두제적인 섭정관계의 문제를 달리 표시할 수 있는 통치의 코드명이 있는바, ‘유훈<sup>遺訓</sup>’이 곧 그것이다. 수직적·종축적 윗대·선조·신대<sup>神代</sup>의 유훈에 의한 다스림, 무한하므로 특정될 수 없는, 그렇기에 숨겨진, 은닉·은폐되어 있는 신성한 ‘이니시에<sup>古</sup>’의 간여, 비밀화된 성총의 간섭. 그렇게 간접화되는 섭정체의 ‘고층<sup>古層</sup>’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성총이니시에, 무궁극적인 정통성의 레벨이다.

천황은 그 자신이 궁극적 가치의 실체라고 할 경우 결코 무<sup>無</sup>로부터의

9) 마루야마가 약식 인용한 것을 정식으로 인용하자면, “만방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한다萬邦をしてその所を得せしめる.”[西田幾多郎 (1943), 世界新秩序の原理, 西田幾多郎全集 第十二卷 (1966), 東京: 岩波書店, 429] 행위의 시킵(사동)과 담합(피동)이 겹으로 된 이 문장은 ‘교토학파’의 스승 니시다 기타로가 제시한 이른바 ‘세계신질서’의 논리로서, 당대 태평양전쟁의 정당성을 위한 논리이자 구호로 재생산되었다.

가치의 창조자가 아니었다. 천황은 만세일계의 황통을 승계하여 황조황중(皇祖皇宗)의 유훈에 의해 통치한다. 흠정헌법이란 것도 천황의 주체적 제작이 아니라 그같은 ‘통치의 홍범(弘範)을 이어 서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천황 역시도 무한의 이니시에(古)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의 권위를 배후에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천황의 존재는 그러한 조종(祖宗)의 전통과 분리될 수 없으며 황조황중과 더불어 일체가 될 때에야 비로소 내용적 가치의 절대적인 체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sup>10)</sup>

흠정(欽定(authorize))된 「메이지 헌법」에 속한 일개 단순한 하위 조항으로서의 ‘만세일계’가 아니라는 것, 거꾸로 그 만세일계의 신통기 속에서 윗대로부터의 유훈을 이어받아 그 다스림의 홍범(廣범위한 대칙[널리 텅-비어있는 세칙])으로서 권위부여된 것이 「메이지 헌법」이라는 것. 종축적 정통성 레벨을 달리 표시하는 만세일계라는 이름 아래에서 메이지 헌법은 천황의 친정(親政)에 따라 흠정된 것인 동시에 황실·황조신(들)에 따라 흠정된 것이었던바, 천황의 친정은 항상 이미 황조신(들)의 섭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종의 신성가족적 섭정체, 그 가족의 성(聖)-유훈을 배후의 항구적 후견·후광으로 자리매김해 놓을 때만이 그 가족의 일원이자 그 빛 전체인 천황은 자신의 정통성 레벨을 보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천황은 정통성 레벨로부터 진리·정의·선·미를 유출시킬 수 있으며 그것들의 구체적 내용 하나하나가 필요에 따라 규제되도록 하는 절대적 ‘천원체(泉源體)’일 수 있다. 전후 숨은 총독이 말하는 천황의 무궁한 성총, 그 가치의 발원지, 그 성-유훈의 섭정관계가 천황의 「종전 조서」와 「인간 선언」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다름 아닌 한반도의 북쪽 ‘김일성 천황’의 이름 아래 보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숨은 총독·총독부가 ‘김일성 천황’이라는 명명법을 통해 “제국 정책의 가장 정통적인 수호처(守護處)이자 상징의 뜻”<sup>11)</sup>을 보존함으로써 저 신성가족의 절대적 원천체를 수호·상징하고, 그 섭정체의 정통성 레벨과

10) 丸山眞男 (1946). 超國家主義の論理と心理, 14.

11) 최인훈 (1968). 總督의 소리 3. 서울: 창작과비평, 622. 고딕체 강조는 인용자.

결정 레벨 간의 이접운동을 연속적으로 가동·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지하의 유령총독부 라디오방송을 통해 총독의 목소리가 다음과 같이 송출된다.

비록 김일성 천황 그 자신이 臣子[신자]로서 만승[1만대의 군사용 수레(천자의 위상)]을 濫稱[장칭]함은 가증하되 그렇게 함으로써 반도의 북반부에 제국의 근본적 통치 구조의 틀을 온존하고 있는 것이 공은 아닐랄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들 북조선 공산당은 제국 신민답게 천황제국가적 사회 형태와 권위신봉적 인간형을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온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제국이 전쟁 기간 동안 꺾던 국가총동원 체제까지 곁들여 김일성 천황을 우으로[최상위로 하여] 일사불란한 군국체제를 지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sup>12)</sup>

제국의 부활로 이어지는 끈·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김일성 천황’의 공훈, 그것은 표층적으로는 공산주의의 겉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기저에서는 제국적 통치구조로서의 국체를 모델로 삼고 있는 데에서 세워진다. 이른바 주<sup>主</sup>·부<sup>父</sup>·왕<sup>王</sup>으로서의 영도자·아버지·수령, ‘김일성 천황’의 그같은 복합층위적 권위·권능·능위의 빛이 그 아래 신민·세키시<sup>赤子</sup>·핏덩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된다. 그럼으로써 부모에 대한 사적인 효성과 공공적 건국의 아버이를 향한 충성, 그리고 신성한 사목력<sup>司牧力</sup>에의 신앙이 하나로 합치된 상태를 자연스런 작위로 내면화하는 인간이 창출된다. 구원의 이름으로, 공/사의 경계를 멸사봉공의 필요에 따라 재량적으로 설정하는 상위적 권위. 그 힘을 향한 ‘신봉<sup>信奉</sup>’의 인간·전체의지, 그런 신민다움의 인간형·심성형을 창출하는, 그런 신민다움의 생산공정으로 서 창출되는 ‘김일성 천황’의 체제란 그렇게 신성한 부권적 권위에의 헌상<sup>獻上</sup>를 시초이자 결과로 설정할 때 가동될 수 있다. 그같은 체재구성·체제이성과 서로를 상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국을 모델로 한 국가총동원 체제

12) 최인훈 (1968). 總督의 소리 II. 서울: 일간 중앙, 413.

혹은 군국체제이다. 지하의 총독이 사려를 기울이고 있는 북조선, 거기서 변주되고 있는 천황제 피라미드와 신민다움의 재생산, 그 제국적 통치의 기저패턴이란 전시상태의 폭력적 합리성 혹은 합리적 폭(권·위)력의 연관에 맞물려 있는바, 그 점은 북조선에서의 제국 리모델링이 국가총동원의 군국 체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다.<sup>13)</sup> 달리 말해, 그것은 총독이 말하는 ‘일사불란 一絲不亂’의 체제이성, 질서화를 향한 체제이유, 내전 억지적 폴리차이(경찰/내치)의 벡터를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총독의 지하 위에 설립된 북조선, 그 영속적 전시체제의 특질 일반을 비취 드러내는 예외적 사태의 빛이다. 다름 아닌 ‘김일성 천황’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그것이다.<sup>14)</sup> 그 천황이 이른바 ‘유훈정치’의 이름 아래 불멸의 권위로 자리매김될 때, 다시 말해 죽은 국부(國父)의 섭정 혹은 영구히 숨은 국부와 이위일체가 된 자(김정일/김정은)의 섭정대행이 행해질 때, 그것은 말하자면 상주정(喪主政)으로서, 영구 보존되는 가치원천체를 향한 제사·헌상사로서, 국상(國喪)의 비상시 정치로서, 애도·묵념(默念)의 계엄조치로서 결행된다. ‘김일성 천황’의 전시체제가 제국의 통치구조를 달리 반복하는 것이었을 때, 그 천황의 죽음 이후 유훈의 상주정·국상정치는 역으로 지하 총독의 전후가 무엇이었는지를, 그 전후적 경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려 준다. 총독의 전후 경륜, 그것은 절대적 가치원천체 혹은 국체 그 자체인 천황의 사실상(de facto)의 유고시(有故時)에 뿌리박은 유훈 섭정의 대행이었다. 전후 숨은 총독의 그같은 유고시 인식과 조치, 유훈의 위

13) 그리고 그런 전시적 체제합리성은 ‘위기’의 상관물이다. “예측하는 이성의 판단에 따라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전쟁 수행에 최적화된 국가적 배치와 관리가 행해질 때, 그 실행의 과정에서 고도의 목적합리성(Zweckrationalität)이 관찰된다. 그러나 ‘작’의 저항의 강도에 따라 규정되는 전세의 변화와 전선의 유동성, 그리고 국내의 정치 상황의 변동 및 지속적 전쟁 수행능력과 관련된 제반 조건의 변화는 이 고도의 합리성 체제에 필연적으로 위기의 계기를 심어 놓는다.”[차승기 (2018), 전쟁합리성과 식민주의, 역사학보 제238집, 2]

14) 1994년도에 그 일과 관련하여, 인용해 놓을 만한 최인훈의 문장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 수장의 죽음은 공산권이 아니라도 어디서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적든 원시종교에서의 수장의 죽음에 대한 닳은꼴로서 가능하다.”[최인훈 (2008), 화두 2권, 서울: 문학과지성사[1994년 초판: 2002년 개정판], 306]

기시 극복을 위한 경륜을 발판으로 삼을 때, 여기 인용해야할 문장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대국상(大國喪)”이라고 부르는 김일성 사망의 사건은 온 사회를 한순간에 정지시켜버렸다. 1994년 이후의 정치과정에서 북한은 김일성의 역사적 카리스마 권력을 헌법상 초월적이며 개념상 초역사적인 권력으로 변모시키는 제도적 혁신을 추진했다. 그 결과는 직무의 계승이 아니었다. 새 국가수반이 이전 국가수반을 대체했다기보다,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새 지도자와 이전 지도자가 각각 물리적 국가수반과 형이상학적 국가수반으로서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제도적 개혁과 결과를 오늘날 북한에서는 “유훈정치”라는 용어로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sup>15)</sup>

절대적 권위의 부재상태, 신민을 구제하는 영도자·수령(首領)의 바로 그 국가적 머리(head) 위격의 권위(關位) 상태. 텅 빈 그 자리를 메우는, 부재자를 현전시키고 궤석자를 상석에 모시는, 달리 말해 저 베버적 ‘카리스마의 무더짐 Veralltäglichung[관성화일상화]’을 거스르는 길, 카리스마적 권위의 필연적인 단절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유훈통치(Ruling with dying instruction, 그것은 사후의 ‘김일성 천황’을 (마치 천황의 황조신(皇祖神[황실의 윗대 조상신들])과도 같이) ‘조상신’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공정 속에서, 정통성 레벨과 결정 레벨 간의 이접 관계를 재설정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화된 것이다. 명시적으로 신설된 그 관계란 ‘형이상학적 국가수반(首班)’이라는 이름으로 상위화된 국가적 머리의 권위·후광·후견·유훈 레벨과 ‘물리적 국가수반’이라는 다른 국가적 머리로서의 권력·집행 레벨이 이루는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 이위일체화의 상태이다. 죽은 ‘김일성 천황’은 그같은 형·이상(形-而上)의 상징적 차원에서 불멸의 현전으로 존속하고 있으며, 그것과 더불어 일체가 된 물리적 국가수반은 그런 형·이상에서 유출되는 유훈을 필요에 따라 해석하고 결정하며 <아리랑 공연>으로 대표되는 국가적 ‘유훈예술’의 스펙터클을 통해 국내외에 재생·디스플레이

15) 권현익, 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파주: 창비, 103.

레이되도록 한다. 두 국가수반, 국가적 머리의 이중화, 달리 말해 분업화된 절대성의 유일지배 속에서, 또는 이접적인 유훈섭정의 다스림 속에서 두 국가적 머리의 이위일체는 진리·정의·선·미의 구체적 내용들을 유출·보급·보증하는 가치원천체를 이룬다. 그같은 이위일체=유훈섭정체의 정초는 김정일의 3년상이 끝난 뒤의 헌법 개정을 통해, 일명 「김일성 헌법」의 ‘서문’을 통해 내외에 공표된다. ‘김일성 천황’의 사후, 북조선 헌법사에서 처음으로 필요해진 그 서문·전문<sup>前文</sup>은 다름 아닌 유훈의 받들어 모심을, 유훈에의 헌상사에 뒤이어지는 ‘김일성 천황’의 재생을 표시하는 데에 오롯이 바쳐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sup>16)</sup> 부재하는 주석<sup>主席</sup>, “민족의 태양”으로서 주인된 자의 그 자리를 영구보존하는 일·법의 당위와 필요 이를 환기시키고 확정하는 문구가 저 ‘영원한 주석’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한 ‘김일성 천황’의 영도력, 그 불멸의 “토대”는 혁명국가의 “만년재보[萬年財寶]”이자 “기본담보”로 설정된다. 사후 만년에 이어질 유산, 부재 이후 만세를 지탱할 기저유훈. 그것은 ‘서문’ 맨 끝에 등장해 이 헌법 전체를 집약하는 명명으로서의 “김일성 헌법”의 이름 아래 국정<sup>國定</sup>-헌상사의 기본 골간으로 자리매김된다. 부재하는 주석을 향해 헌상된 헌법, 그 영구적 헌상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 (1998). 1998년(주체 87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 의한 수정·보충판 출처: ‘내 나라(NENara)’ 홈페이지 [<http://www.kccckp.net/ko/great/constitution.php>]에서 인용(이하 이 헌법 서문에서의 인용 시 출처는 동일함). 앞질러 말해놓건대, ‘김일성 천황’이란 이 헌법 서문에 나오는 “일심단결된 대가정<sup>大家庭</sup>”의 영구적인 아버지이며, 그런 대가정, 곧 後後-식민지 한반도 북쪽의 ‘인민공화국’이란 제국 일본의 ‘거국일가’ 혹은 ‘일대 가족국가’를 모델링한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국책 이데올로기 저작의 한 대목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황조의 신칙을 받들어 영원히 이를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들 만고불역의 국체이다. 그리고 그 대의에 기초해, 일대가족국가<sup>一大家族國家</sup>로서 역조 일심[으로] 성지<sup>聖旨</sup>를 봉체<sup>奉體</sup>함으로써 지극하게 충효의 미덕을 발휘한다.”[文部省 編纂 (1937). 國體の本義 東京: 文部省敎學局. 9]

사 속에서 재생될 영원한 주석을 통해 보장되는 것, 그런 불멸의 주석이 “법화(法化)”된 헌법, 절대적 지존이 육화된 그 헌법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 저 국가적 두 머리로 구성되고 발현되는 이위일체적 폭(권·위)력(gewalt)이다.

### III. 주권면책의 폭력, 권위의 미스터리(비밀/신비)화

그런 이위일체=유훈섭정체의 폭(권·위)력이 발현되는 구체적 맥락과 상황은 「김일성 헌법」의 세부 조항들에서가 아니라, 그 헌법을 정지시켜야만 할 필요의 해석 및 결정에 직결된 모종의 강령에서, 손바닥 크기의 휴대 가능한 어떤 팸플릿에서, 공화국 구성원 모두가 암기하고 있어야 할 준칙에서 적출될 수 있다. 김정일이 후계 구도·투쟁의 우이를 잡았던 1974년도의 강령,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이 그것인바, 세칭 ‘김정일 십계명’으로도 명명되는 이 텍스트는 1998년도 「김일성 헌법」 서문의 유훈정치론을 구체적으로 선취하고 있다. 「10대 원칙」 속에서도 ‘김일성 천황’은 “영원히 높이 모셔지는 [...] 민족의 태양”인바, 그 “빛”의 “교시”, “끊임없이 대를 이어 계속되고” 거듭해서 “따라 배워야”하는, 그렇게 “가리켜지는 참된 길”<sup>17)</sup>이란 ‘김일성 천황’을 중심축으로 삼은 유훈정치의 운용을 검토해볼 수 있게 한다. 그 천황의 빛·고코[御光=後光]가 비춰 가리키는 길이란 “승리와 영광의 길”이므로, 그 영광의 교시가 가진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려는 어떤 자그마한 요소도 비상사건화”된다. 권위·정통성의 레벨에 대한 위협요소는 법 위에서 선결집행되는—법보다 먼저 나가는 폭(권·위)력으로서의—조치를 통해 억지된다. 그런

17)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97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974~1977) 3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01(이하 인용시 출처는 동일 저작). 이 강령적 텍스트는 2013년 3대 세습적 카리스마로서의 김정일에 의해 수정·보충되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제목을 달고 공표되었다. 김정은 체제의 시점에서 행해진 헌법분석 및 관련 연구사 개괄로는, 전우석 (2015), 유훈통치(遺訓統治)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북한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권 2호, 49-88을 참조.

비상시의 결정이 체제 내부적인 필요에 따를 때, 그것은 이른바 “유일적 령도[領導]”의 힘을 분점하거나 분산시키는 모종의 아나키·이단들·간접권력들에 대한 사전 예방을 목표로 삼는다. 그리하여 “당중앙의 승인 없이 취해진 행동들, 특히 [...] 친척, 친우, 동향, 동창, 사제 관계와 같은 정실[情實] 및 안면 관계에 의하여 간부 문제를 처리하거나 개별 간부들이 제멋대로 간부들을 떼거나 등용하는 행동”은 섬멸되어야 할 내부의 적으로 선고된다.

그렇게 보워되는 유일 영도의 체제, 즉 따라 배워야 할 유훈으로서 반복되는, 그런 유훈의 패턴화된 철칙이자 척도(“자尺[척대]”)로서 승계되는 그같은 유일성의 체제는 다름 아닌 체계적 면책의 구조이기도 했던바, 그 점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김일성 천황’의 “교시 집행에 있어 철저히 지켜져야 할 무조건성”의 강조이다. 그것은 ‘교시’와 ‘집행’ 간의 이접(분리/접합)이라는 관점에 걸린다.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접수하면 곧바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집행대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속도전을 벌여 제때에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교시敎示, 그것은 ‘김일성 천황’의 빛·영광에 의한 길의 가리킴·가르침을, 그렇게 발현되는 권위·정통성의 레벨을 표시하며, 그런 교시의 집행은 결정·권력의 레벨을 표시한다. 교시가 제시되면(교시가 빛을 발하면) 그것에 최적화된 실행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프로세스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입안과 토의를 거쳐 신속히 설정되고 집행된다. 교시하는 ‘김일성 천황’, 위쪽·머리로부터의 그 교시를 받잡아 결행하는 아래쪽·집체集體. 교시하는 그 권위, 교시의 그 절대적인·무조건적인 정통성 레벨이 결행 레벨과 맞는 이접관계란, 다름 아닌 제국 일본의 천황이 자신의 빛·조직에 대한 결정 레벨로부터 올라오는 보고·상주를 ‘들으셨을[키코시메스]’ 때, 그럼으로써 구체적인 실행에 관해 ‘알게 되셨을[시로시메스]’ 때의 이접관계를 반복하는 것이다.<sup>18)</sup> 그런 반복적 패턴 속에서 다

18)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보고에 따라 천황이 ‘키코시메스[聞こし召す(들으시다)]’하게 되거나 ‘시로시메스[知ろし召す(아시다/알게 되시다)]’하게 되는 것은 마루야마에 의해 고대로부터 제국 일본에까지 이어지는 정치의 근본형식으로 정의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한 대목을 참조

저지는 주권면책의 법권(法權/法圈), 그 속에서 자유재량화되는 폭(권·위)력. 그것이 정통성-형이상학적 레벨과 결정-물리적 레벨이라는 두 국가수반 간의 이접관계가, 두 국가적 머리의 이위일체=유혼섭정체가 다름 아닌 가치의 원천체로 정초되게 하는 힘의 양태이자 프로세스이며 체제의 상대적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원리이자 공간적 질서화의 방법이다. 유혼, 그 섭정적인 것의 개념이 가리키는 통치의 내실이 그와 같다.

주권면책의 개발트, 유혼정치의 반복적 중핵. 그것은 한반도 지하의 총독이 ‘김일성 천황’의 피라미드 체제에 붙였던 이름들, 곧 ‘국가총동원 체제’와 ‘군국 체제’의 밑바닥 기저를 ‘선군(先軍)정치’라는 다른 이름으로 다시 표시할 수 있게 한다. “김정일이 군을 우선한 것은 경제적 실패와 인민이 겪은 재앙에 대한 책임을 모면해야 한다는 필요성과도 연관된다. 그 점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주로 비민간적이고 비경제적인 국가정책에만 연관시키고자 했으며, 이는 북한이 선군정치라는 정치적 노선을 취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럼으로써만 정치적 지도부는 경제적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주민들의 관념 속에서 당이나 다른 행정기구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었다.”<sup>19)</sup> ‘김일성 천황’을 중심축으로 한 ‘일심단결된 대가정’의 정치체제에서 경제적 번영과 고난 모두는 원리적으로 그 가정의 아버지·영도자의 ‘은총’과 ‘책임’에 귀속되는 것이었던바, 선군정치는 경제의 위기로부터 촉발된 아나키적 힘이 아버지·영도자의 정통성 레벨을 문책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그 분리의 뒷면·후위에 숨어서—그러니까 특권적 면책의 보장 속에서—다른 행정기구들을 대리로 내세워 지배하

---

할 수 있다. “언뜻 역설적으로도 보이는, 정사가 ‘아래로부터’ 정의되고 있다는 것은 결정이 신하에게로, 또다시 그 신하의 신하에게로 하강해가는 경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 경향은 병리현상으로서의 결정의 무책임체제가 되며, 좋게 말하면 전형적인 ‘독재’ 체제의 성립을 곤란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丸山眞男(1985). 政事まつりごとの構造: 政治意識の軌跡低音, 丸山眞男集 第12卷(1996), 東京: 岩波書店, 238]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 정사 용어로서의 ‘키코시메스·시로시메스’에 ‘오보시메스(思し召す[생각하(게 되)시다].를 접선시켜 달리 검토할 것이다.

19) 권현익, 정병호(2013). 극장국가 북한, 239.

는 간접권력적 군대의 정치, 선군이라는 섭정적인 것. 북조선 선군정치의 그 같은 면책이유는 이미 ‘김일성 천황’의 교시에 따라 설정된 것이었으며<sup>20)</sup>, 그렇기에 유훈으로서, 결정에 대한 면책의 체제구성론으로서 따라 배워야 할 지배의 방법이였다. 유훈과 선군, 달리 말해 저 국가적 두 머리의 이위일체에 의한 정치의 방법연관은 그렇게 정통성 레벨의 비상시에 관한 결정력·억지력으로서, 경찰적/내치적인 힘으로서, 일사불란의 폭(권·위)력으로서 발현한다.

그 ‘일사불란’이라는 이름의 국시國是[막심 데타], 그것은 카리스마적 권위·정통성의 레벨을 영속화하기 위한 유훈정치적 체제이성의 목표이자 방법이었던바(아나키[亂] 없음, 안티[不]-아나키는 목표이고, 하나의 끈[一絲]으로 엮음·짚은 방법이다), 한반도 지하의 총독은 제국을 따라 배운 북조선 유훈정치의 그같은 영속화 상태를 제국 부활의 주요 계기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독은 자신의 경륜을 전파에 실어 보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6·25 전쟁’의 정세 분석을 매개로 삼아 고지되는 내전의 아나키에 대한 경고이자 그런 무법상태 속에서 초래될 정통성 레벨의 해체에 관한 신중한 사려로서 제시된다.

이 싸움<sup>[6.25]</sup>에서, 북조선 일당[一黨]은 혁명세력이란 이름으로 남부 민중에 대해 누릴 수 있었던 神秘[신비]의 가리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 혁명세력은 이기기 위해선 민중에게 체제에 대한 채점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환상적 얼굴만을 먼빛으로 보여 주고 실무적 卑俗性[비속성]은 내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북조선 일당은 혁명이 일상의 차원에 내려왔을 때의 모습과 함께, 대국의 앞잡이 노릇을 해야 하는 소국의 초라함까지를 내보이고 만 것입니다.<sup>21)</sup>

20) 김정일 체제 하에서 공식화된 선군정치는 그 시점에서 ‘김일성 천황’이 앞질러 창제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김일성주석은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시다”라는 문장이 내외에 공표됐던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김일성주석과 선군 (2008). 출처: ‘내 나라(NENara)’ 홈페이지 [http://www.kcckp.net/ko/event]에서 인용].

21) 최인훈 (1976). 總督의 소리 IV, 188.

한반도 6·25의 동란(動亂), 동족 간 상잔(相殘)의 정세 속에서 총독은 내전을 계기로 전개되는 정치적 효과를 보는바, 그것은 필시 정통성 레벨의 근거 소멸로 이어지게 될 것이었다. 달리 말해 그것은 ‘혁명이 일상의 차원으로 내려왔을 때’를, 그렇게 혁명적 체제의 신비·스펙터클·환상·전망·유토피아가 벗겨지고 뭉개지고 깨지고 사라지고 들끓는 시간을, 그 1인 혁명적 카리스마의 권위·정통성이 비속화·일상화·관성화·무력화되는 시공간을 뜻한다. 적군에게 점령되어 있던 바로 그 시공간 속에서 인민은 계산적 합리성으로 각성되며 체제는 공개되어선 안 될 치부를 부득이하게 드러낸다. 소련의 ‘앞잡이’라는 치부·실재, 체제의 실재·흔네(本音 [본래면모])를 말이다. 한반도의 남북이 항시 적정선의 내전상태를 유지할 때 제국의 이익이 커진다고 보는 총독은 그런 실재의 강제적 공개상태를 우려하고 경계한다. ‘김일성 천황’은 소련이라는 한층 더 상위적인 권위 아래의 실무적 하수인으로 드러나선 안 된다는 것, 그런 본래면모는 어디까지나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 나아가 숨겼음에도 숨기지 않은 것인 양 시의적절한 외양·타테마에(建前)를 취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드러냄과 숨김의 조절상태·최적화상태만을 디스플레이하면 된다는 것, 카리스마적 권위·정통성을 항시 낮설고 생생한 신비·비밀상태로 유지해야한다는 것. 그런 한에서, 정식화될 수 있는 테제 하나는 다음과 같다. 드러냄·공개상태와 숨김·비밀상태 간의 변증법이 정통성의 레벨을, 그것과 결정 레벨 간의 이접적 운동을 보위한다.

#### IV.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맥아더와 히로히토의 전후 합작

그런 총독의 경륜, 정통성 레벨의 숨은 수호자로서 그가 갖게 되는 정세기 확력이 발원하는 원천, 거기는 제국 천황의 정통성 레벨을 표시하는 말의 차원을 통해 검토될 수 있다. 즉 천황 자신의 빛·조칙(고코·고신닌)에 대해 그 실행의 보고를 ‘들으심으로써 아시게 되는(키코시메스-시루시메스)’ 바로

그 자리, 그 피동적 청취자의 상황, 배후로 숨겨지는 후견자의 장소가 그것이다. 이에 비견되는 말 그대로의 물리적 시공간이 있는바, 그것은 도쿄 공습을 예상해 나가노의 산속에 구축된 지하 진지 ‘마츠시로 대본영(松代大本營)’, 그 어전회의실이다.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직후인 1945년 8월 9일 심야 1시, 지하 10미터 방공호 15평짜리 어전회의실에서 연합국 「포츠담 선언」의 수용을 둘러싼 찬반이 3 대 3으로 갈렸을 때(찬성은 추밀원 의장, 외무대신, 해군 대신. 반대는 ‘일억 옥쇄(玉碎)’를 주장했던 육군대신, 참모총장, 군령부총장), 스키 칸타로 수상이 일어나 히로히토 천황에게 청하였다. “오늘 나란히 앉은 이들 일동은 열심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만, 방금까지도 의견은 정돈되지 못하였습니다. 사태는 긴박하므로 지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송구하오나 여기서 천황 폐하의 오보시메시(御思召 [생각하고 계신바])를 여쭙고, 그것에 의해 저희들의 의견을 정돈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 부디 오보시메시를 들려 주십시오” 잠시 뒤, 상체를 약간 내민 천황의 성단이 주어졌다. “그러하다면 [그렇게 청하니] 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자신의 의견은 외무대신의 의견에 동의(同意)이다.”<sup>22)</sup> 쇼와 천황 히로히토의 이 두 마디 말, 그 말의 상황을 관통하고 있는 낱말이 ‘오보시메시’이다. 다만 들으시고 알게 되시는, 그런 수동형 속에서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그렇게 키코시메스-시루시메스-오보시메스하는 천황의 그 귀·않·생각·입·말·뜻의 연관으로 표시되는 것은 천

22) 迫水久常 (1955). 終戦の真相 東京: 道徳科学研究所, 51(이 책은 도덕과학연구소 ‘사회교육 강좌 강연’의 기록이며, 이를 남긴 사코미즈 히사츠네는 스키 칸타로 종전내각의 서기관장이자 참의원 의원이었던 인물임). 인용문은 이 책의 11장 「종전에 대한 8월 9일자 어전회의의 상황과 오오미코코로大御心 [폐하의 마음]의 고마움에 들어 있다. 종전의 수락을 둘러싼 절차의 문제에서 중대했던 것은 “폐하의 고세이단(御聖断 [신성한 결단])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가라는 점”(51)이었다. 그 점에서 선택됐던 것이 어전회의라는 방법이었으며, 그것은 군부 청년 장교들의 불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는 늙은 수상에 짊어진 젊은 천황은 돌아가 앉기를 표했으나 수상은 알아들지 못했고, 재차 표했을 때 수상은 돌아가 앉았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이 미화되고 있다. “성천자(聖天子) 앞의 80세 늙은 재상, 군신일여(君臣一如)라고 해야 할지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정경이었습니다.”(51) 사코미즈에겐 그 신성한 결단, “감격스런 그 눈물의 순간”에 천황은 다음과 같이 비취졌다: “폐하의 모습에는 후광이 비추이고 있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56)

황의 정통성 레벨이 발현되는 절차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천황 면책의 프로그램이자 그 권위의 보위 프로세스이다. 왜냐하면 3 대 3으로 갈렸을 그때 나온 천황의 말이 자신의 의지에 뿌리박은 말이 아니라 아래쪽으로부터 들려온 요청에 이끌려서 나오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며,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랫사람의 말과 같은 말, 아랫사람의 말로 대신하는 말, 미루는 말, 넘기는 말, 아랫사람의 말이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없었을 말이기 때문이다. 아랫사람의 말 뒤로 숨는 말, 그 배후에서 아랫사람의 말을 후견하는 후광의 말이 천황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발화의 과정으로 이뤄지는 천황의 ‘성단’, 키코시메스-시루시메스-오보시메스라는 어전(御前)의 기획으로 이뤄지는 신성한 결단의 원형질이 그와 같다.

그런 (배후적) 발화의 과정, 종전·개전이라는 국권발동의 극한값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그같은 (이면적·지하적) 말의 구조가 천황의 면책 근거로 기능하는 것일 때,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공문서가 있다. 1945년 11월 시데하라 내각의 결정문 「전쟁책임 등에 관한 건」, 그중에서도 천황의 듣기·말하기·마음씀에 관련된 결정적 문장들이 그것이다. 전쟁의 불가피함·부득이함 속에서 그 결정문 전체를 규정하는 ‘일반통칙’ 제1항—“대동아전쟁이란 제국이 사방의 정세에 비추어 어쩔 수 없이 [“자위권을 발동”하여] 나서게 됐던 것이라고 믿고 있음”—에 뒤이어지는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천황 폐하에게 있어 개전의 결정 및 작전계획의 수행 등에 관한 것은 헌법 운용상 확립된 관례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인바, 폐하께서大本영 및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두고 각 하하실 수는 없었다는 것.”<sup>23)</sup> 문건 속에서 반복되는 제3항의 논리는, 개전의 결정이나 구체적 작전계획의 실행이 다름 아닌 헌법에 준해야 할 사안이었으

23) 幣原内閣(1945). 戦争責任等に関する件(閣議決定, 1945. 11. 5). 粟屋憲太郎 編(1980), 資料 日本現代史2: 敗戦直後の政治と社会(1). 資料 89. 東京: 大月書店, 341(1항과 3항은 파동형과 사동형이 뒤섞인 까다로운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주어 혹은 행위의 귀속점은 혼동이 가중되도록 처리되어 있다. ‘개전의 결정 및 작전 계획의 수행’과 관련한 천황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3항이 이 문건 전체의 관건이 되는데, 그 항은 통칙 뒤에 붙은 ‘세칙 1(폐하에 관한 설명)’의 2항에서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다.

므로 입헌적constitutional 군주로서의 천황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입헌立憲 군주, 헌법에 근거하여 세워진, 헌법에 의해 제약받는 1인 지배자로서의 천황.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각행정의 권력과 군부 최고결정기관 대본영이 행한 개전의 결정을 다만 재가할 수 있을 뿐 거부할 수는 없는바, 결정의 책임은 그런 천황이 아니라 이른바 ‘책임내각’에 있다는 것이다. 패전 직후 필요해진 입헌군주로서의 천황이라는 타테마에, 그 표면상의 제한적 틀은 메이지 이후 ‘제-와-레’에 관한 해석 및 결정의 재량적 독점자로서의 천황이 가진 사실상의 위격에 의해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소되어 왔던 것이다. 언제든 그같은 해석자·결정자일 수 있었으되 패전 직후 전범 기소의 위기 국면을 맞이해서는 입헌군주의 페르소나만을 내건 쇼와 천황에게, 이후 다시는 그 페르소나를 벗어나는 안 된다고 속삭이듯이, 그 페르소나를 천황의 실제 얼굴에 다시금 못질이라도 하려는 듯이 시종장侍從長 후지타 히사노리가 질문했고, 쇼와 천황은 알아들었다는 듯이 답한다. “폐하께선 어쩌서 스즈키 내각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세이단[御聖斷]을 내리게 되셨음에도 도조 내각에는 개전을 허락하게 되셨던 것인지요?”; “일본의 헌법은 책임내각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천황은 통치하되 정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방침이었다. 구체적인 정치문제에 관해서는 전부 책임내각이 책임을 지고 행하는 것이어서, 천황은 그것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도조 내각 때는 각료회의로 개전을 결정해 [나] 자신의 재가로 매듭을 짓고자 왔었기에 헌법의 절차에 의거하여 재가했을 따름이다. 스즈키 내각의 경우는 내각이 의견을 구하고자 왔었기에 당장에 [나] 자신이 의견을 말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공무권한을 침해하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 자신은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이다.”<sup>24)</sup> 이른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의 (상징)천황적 버전. 19세기 부르주아-입헌군주제의 당파적 표어로 유명해진 그 문구는 제국 일본의 패전 직후라는 정세 속에서—

24) 迫水久常 (1989). 昭和の御聖斷. 日本を守る国民会議編 (1989), 聖帝: 昭和天皇をあおぐ. 東京: 日本を守る国民会議 88.

현인신 천황이 신성을 버리고 인간임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됐던 국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달리 가능하든바, 지존의 입에서 나온 그 문구는 천황이라는 권위·정통성 레벨의 서명 및 의향을 자기 의지적 행위책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전 및 종전에 관한 결정 레벨(책임내각)의 보고·상주·요청에 따른 입헌적 수동태의 산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이바지한다.<sup>25)</sup> 그같은 면책의 위엄 속에서 천황은 결정·통치·집행의 대체적 윤곽에 관해서는 듣게 될지라도 그 구체적 세부항목에 관해서는 듣지 못하며 따라서 알지 못한다(위의 시데하라 내각 결정문 세칙 1의 3항은 다음과 같다. “진주만 공격 이전에 해군 막료장으로부터 초기 작전의 대강에 대해서는 들었을지라도 실시 세목에 관해서는 보고받고 있지 못했다는 것.” 그렇기에 세칙 1의 4항에서 천황은 “선전 포고와 관련해서 엄격히 법률적으로는 고쇼치(御承知[알고 계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된다). 군림할 뿐 통치에 관해서는 키코시메스하지 못하고 시루시메스하지 않는 천황은 개전과 종전에 관한 책임내각의 결정 레벨 앞에서 다만 ‘성령(聖慮)’의 오보시메스만을 표할 따름인 것이다(시데하라 통치 2항: “천황 폐하께서는 대미 교섭이 평화롭게 타결되지 못하게 될 때에 관한 고신넌(御軫念[염려하심])이

25) 사코미즈의 기록으로 재생되는 그 한 문구는 반복된다. “메이지 헌법 제정 이후, 특히 다이쇼 천황 이후의 제왕학에서는 ‘천황은 통치하되 정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영국 풍의 교육이 있었지만, 말하자면 완전한 책임내각제로서, 천황은 내각에서 결정한 것에 관해서는 반드시 재가되도록 하는 관습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迫水久常, 終戦の真相, 85) 바꿔 말해, 군림과 통치의 이접적 관계, 예컨대 천황을 ‘보필’하는 대신들, 천황에 ‘직예(직속)’하는 총독과도 같이, 군림하는 천황과 실제로 통치를 행하는 총독·대신이 맺는 상보적 관계에 관해 참조할 수 있는 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총독, 대신(大臣), 고관, 관리, 전령 등을 통해 통치했던 페르시아 황제를 신에 견주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스토아 철학자들의 신과 달리 직접 온 우주를 주재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신보다 낮은 신들과 천사 그리고 전령 등을 통해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시원(원리)으로서 그는 [천상의] 가장 높은 층에 거하지만 그럼에도 여타의 많은 [부분적] 시원들(archai)을 배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감히 범법할 수 없는 거룩한 위력을 가진(persönlich) 존재의 위엄에 걸맞기 때문이다.”[Schmitt, C. (1970), Politische Theologie II: Die Legende von der Erledigung jeder Politischen Theologie. 조효원 옮김 (2019). 정치신학 2: 모든 정치신학이 처리되었다는 전설에 대하여. 서울: 그린비, 72-73. 대괄호는 저자

있으셨던 것.”[이는 세칙 1의 1항에서 반복된다]. 천황의 저 빛·신임(고코·고신닌)의 한 가지 현상형태로서의 고신넨(천황의 염려하는/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씀·성려 속에서 천황은 미국에 대한 선전 포고의 조서에 “고쇼메(御署名)했던 것인바, 그 서명날인 역시도 “개전이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것임을 국민에게 고스이지(御垂示 [가르쳐 보이심] 하기 위한”(세칙 1의 5항) 성려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군림하는 천황의 그같은 “오보시메시(御思召 [뜻하심바]를 체화하고 힘을 다해 그것을 달성코자 노력했음에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 채로 끝났던 것”(세칙 5의 1항)이라는 문장으로써, 천황의 귀·입·마음에 따른 신성한 행위연관의 면책 프로세스는 마무리된다. 이는 전후 점령정책의 연차록 혹은 점령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수립된 미군정의 천황 면책 프로그램과도 합치되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7일 맥아더 원수와 히로히토 천황 간의 1차 비공개 회담에서 천황은 11월 5일 시데하라 내각의 결정문보다 앞서, 전쟁을 있는 힘껏 피하고자 했었음을 피력하면서 ‘결과적으로 개선’된 일에 유감을 표했고, 이에 대해 맥아더는 그같은 ‘평화의 방향을 위한 (폐하의) 걱정과 마음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한 대목이 뒤이어진다.

폐하 포츠담 선언을 정확하게 이행하고자 한다는 생각은 요전에 시종장을 통해 각하에게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맥[Mac]원수 종전 후, 폐하의 정부는 참으로 바쁜 와중임에도 모든 명령을 일일이 남김없이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 수많은 유능한 관리들이 착착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상찬에 값하는 바입니다. 또 성단이 한 번 내려짐에 일본의 군대도 일본의 국민도 모두가 그에 정연하게 따랐던 훌륭한 모습이란, 다름 아닌 미이즈(御稜威 [천황의 위세·위광]에 따른 것으로서 세계 그 어떤 나라의 원수도 거기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금후의 사태를 처리함에 있어 폐하의 기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 더 말할 것도 없이, 폐하만큼 일본을 알고 일본국민을 아는 이는 달리 없으므로, 금후 폐하에게 무언가 의견이나 알아차린 것(Opinion and advice)이 있으시다면, 시종장이나 기타 그럴만한 사람을 통해 말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폐하 각하의 사명은 동아의 부흥, 즉 동아의 안정 및 번영을 다져감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대한 사명의 달성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맥[Mac]원수 그것은(동아의 부흥 운운) 바로 제가 염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보다 위의 권위(어소리티[authority])가 있으니, 저는 그 권위에 의해 부러 쓰이는 파견소<sup>出先</sup>(에이전시[agency])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그런 권위라면 어떻게 하는 마음이 듭니다.<sup>26)</sup>

맥아더가 말하는 ‘폐하의 정부’, 즉 천황의 위광·후광과 그 빛에 비춰진 정부의 세부적인 실행·집행 간의 분리 혹은 분업의 인식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정치신학적 표어를 저변에 두고 있는바, 이를 통해 맥아더는 군림·정통성 레벨과 통치·결정 레벨 간의 이접적 운동관계를 주권면책의 정당성 근거로서 확정한다. 맥아더와 히로히토의 그같은 면책 합작이 전후 평화의 일사불란한 질서를 도래시킬 것이었다. 다시 말해, 질서정연해질 점령군정 기간 동안 국가와 국민의 상징이 될 천황 히로히토의 후광은 각하<sup>閣下</sup> 맥아더의 결정 레벨이 청하는 의견 및 조언(그러니까 오보시메시)의 형태로 군정의 점령정책과 이접됨으로써 전후적 폴리차이[경찰/내치(경찰적 내치)]의 상태를 공동구축할 것이었다(이후 맥아더·히로히토의 비밀회담은 10회 더 이어졌다). 그러하되 군림·권위와 통치·권력 간의 그같은 이접관계는 단선적인 것이라거나 단일층위로 된 것이 아니라 복선적·중층적인 것이었다. 각하 맥아더의 자기 인식, 더 높은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예컨대 대통령 트루먼)의 의향을

26) 이 한 대목은 맥아더·히로히토 1차 회담의 통역자 오쿠무라 카츠조의 수기 기록 가운데 일부이다. 공개가 불허되었던 그 수기는 작가 코지마 노보루의 손에 들어가 1975년 처음 공표되었는데, 위의 한 대목은 코지마의 글에 전문 게재된 수기로부터 인용한 것이다. 児島襄(1975). 天皇とアメリカと太平洋戦争, 東京: 文藝春秋 1975년 11月号, 117. 1차 회담 통역자 오쿠무라는 외무성 관료로 시작하여 공내청 어용계<sup>御用掛</sup>로서 통역을 맡았다. 그의 수기는 또 한 명의 회담 통역자였던 마츠이 이키라의 문서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었다. 일명 ‘마츠이 문서’로 알려진 그의 기록물들은 출판될 목표로 정돈된 것이었지만 공내청 상부 전원의 반대로 비밀서고에 들어갔었다. 2002년 8월 《아사히 신문》이 사본 형태로 입수, 특집 기사로 그 개요를 제시함으로써 공개되었다(豊下楯彦(2008). 昭和天皇・マッカーサー会見, 권혁태 옮김(2009). 히로히토와 맥아더. 서울: 개마고원, 126).

받잡지 않으면 안 되는 대행자·에이전트에 불과하다는 자기 위격에 대한 인식 속에서 맥아더는 자신이야말로 궁극적 최고권위의 위격에 자리하길 원한다(그런 한에서 맥아더와 그의 군정에 대한 당대의 세칭<sup>世稱</sup>, ‘맥막부<sup>マック幕府</sup>’ 또는 ‘맥쇼군<sup>マック將軍</sup>’은 군림과 통치의 관계설정에 대한 맥아더의 자기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시사적인 키워드로 새겨질 수 있다). 아나니 다를까 히로히토 역시도 맥아더라는 대행자·에이전트를 건너뛰어 워싱턴과의 직접 접촉에 나서는 모종의 이중외교 노선을 취했던바, 전후 정통성 레벨로서 군림하는 천황은 (황조의 신통기·유훈을 반잡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워싱턴의 상위 권위를 향해 아래로부터 현상사함으로써만 스스로의 자리를 보위할 수 있었다. 필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된다. 한반도 지하에 숨은 총독, 제국의 부활을 위한 그의 경륜이란 무엇인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히로히토·맥아더의 공동인식을, 그 전후적 질서화 공정에 따른 평화상태·균형상태의 합의·합작을 다름 아닌 타테마에적 가상으로 규정하는 힘, 예컨대 ‘인도人道[휴머니티]에 반하는 죄’와 ‘세계 평화’라는 이름의 보편주의적 적대 구도를 거스르는 힘, 인류·평화라는 추상화·거시화·절대화된 정당성 근거를 무위로 돌리는 힘, 진정한 전쟁=정치의 폭(권/위)력이다. 이를 한 마디로 집약하는 총독의 경륜용어가 있다. “항재전장<sup>恒在戰場</sup>.” 총독 스스로가 설정한 자신의 자리·뿌리, 전후 평화의 가상을 깨는 항시적 전장. 평화·평상시의 법을 침묵하게 하는 그 전장·비상시의 인식론이 지하 총독의 경륜 근거인 것이다.<sup>27)</sup>

27) ‘항재전장’, 그것이 전쟁과 정치가 필요에 따라 상호 치환되는 장소로 표현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이다. “클라우제비츠는 말하기를, 전쟁은,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정치의 연장이라고 했을지라도, 이것은 아직도 소승적<sup>小乘的</sup>인 덜 떨어진 말이고, 정치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하는 전쟁의 연장이라 함이 논리일관한 것입니다. (...) 전쟁 전리품의 향락, 전쟁 전리품의 향락, 이것이 삶의 가락입니다. 그 밖의 온갖 것은 이 근본현상을 둘러싼 허울이요, 군더더깁니다. 본인은 항재전장의 마음으로 구령<sup>舊領</sup>에서 지난 30년을 바라보면서 한때나마 이 감각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최인훈 (1976). 총독의 소리 IV, 175)

## V. 지배의 네크로필리아(시체애호): 불멸의 산 주검과 국체의 일체화

현인신·천황. 그는 「종전 조서」의 깨어진 옥음 속 신성한 유훈(유범<sup>遺範</sup>)을 받잡아 전후 국체수호의 담론적 교시와 방침을 제시했고 한반도 지하의 총독은 제국 부활을 위한 경륜에 근거하여 그 교시를 한반도 북쪽의 실험실에서 실행되고 리모델링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 실험적 결과물로서 탄생됐던 것이 저 ‘김일성 천황’이다. 지하 총독의 그같은 인식은 천황·국체를 둘러싼 힘의 전후적 관계, 즉 전후 가상적 평화상태 속에서 왜곡·변경되고 점령손의계산과 코뮤니즘 억제정책에 의해 형질전환되고 있던 일본 본토의 타협적 현상유지상태로부터 이탈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었다. 총독의 경륜에 따라 명명된 ‘김일성 천황’, 그것은 그렇게 산산조각난 신의 파편들을 수집·재조립하려는 숨은 총독의 전후론에 따라 다시 명명되고 달리 창출된 ‘상징적 천황제’의 다른 이름이다. 앞서 말했듯, 제국을 모방함으로써 제국을 살아 있게 하는 한반도 북쪽의 유훈체제란 ‘김일성 천황’의 사후, 다름 아닌 형이상학적 국가수반(정통성 레벨)과 물리적 국가수반(결정 레벨)이라는 두 국가적 머리의 이접체<sup>離接體</sup>로서, 그 두 수반·머리 간의 이위일체적 섭정체로서 정초됐었다. ‘김일성 천황’이 형이상학적 국가수반의 자리·위격이자 유훈의 원천으로서 보위되는 방식, 그의 죽은 신체를 새삼스레 낚선 것으로 새겨보게 된다.

국가적 애도기간에 이뤄졌던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그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영구 보전한다는 결정과 김일성의 영생에 대한 대중적 캠페인이다. 그것에는 육체의 부패와 해체라는 자연스런 과정을 거스름으로써, 자연에 도전하는 과학과 기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 또한 있었다. [...] 그 유훈정치에 포함된 것이 추상적인 개념적 원칙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구체화된 유산이라는 사실은 시신을 영구 보전하겠다는 결정과 그 불멸화된 몸을 안치한 장소를 보면 분명해진다[그 시신은 죽어서도 공무를 보는 듯, 생전의 집무실(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됐다].<sup>28)</sup>

28) 권현익, 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104.

방부<sup>防腐</sup> 조치되는 ‘김일성 천황’의 죽은 신체, 썩지 않고 영구 보존되는 천황의 사체, 그렇게 상징화되는 영원한 국체. 그같은 형·이상<sup>形-而上</sup>의 차원은 그 시체의 물질성, 그 물리적 형태의 영구화라는 과학·기술력으로 현시·과시된다. ‘김일성 천황’의 사후 유훈체제를 이루는 두 국가수반, 두 국가적 머리로 이뤄진 그 이위일체의 기반에는 그렇게 방부 처리된 불사의 시체·신체가, 불멸의 산 주검과 한 몸이 된 국체가, 지배의 네크로필리아<sup>Necro[시체-]philia</sup> [애호]가, 네크로맨서<sup>necromancer</sup>[시체의 영혼과 연결될 수 있는 주술사/강령술사]의 지배과 학이, 정통성 레벨과 결정 레벨을 이접시키는 지배기술적 괴기<sup>怪奇</sup>[grotesque]가 있다. 그 천황의 그로테스크, 그 괴기 곁에서 달리 말하자면, 프랑켄-텐노<sup>天</sup> 皇. 숨은 총독의 비밀화된 경륜실험에 의해 짜기워지고 끼워 맞춰진 ‘김일성 천황’의 신진대사, 한반도 북쪽이라는 실험실에서 조합되고 조형된 그 천황·천황제의 뼈와 조직과 피와 숨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두 국가수반, 두 레벨간의 이접이 그같은 그로테스크를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일 때, 방부 처리된—육체의 옷·구속복을 벗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게 된—그 천황은 제국의 천황이 그랬듯 북조선 가족국가의 ‘조상신적인 존재’로서 초월화·성화<sup>聖化</sup>된다. 언제 어디든 편재하는 신적인, 어떤 경계도 자유로이 넘는 유령적인 신체. 아들-국가수반의 결정을 항시 정통화하는 후견자적인 아버지·주<sup>主</sup>, 그 불멸하는 사체, 유훈의 체제. 아들에 의해 방부 조치된 아버지와 그 아들이 맺는 이접적 관계란, 혹은 모종의 성부와 성자가 맺는 그같은 이위일체적 관계란 무엇보다 체제의 위기를 결정하고 초극하기 위한 기반석이 된다. 그 한 사례이자 범례로 제시하게 되는 것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서사”인바, 거기서 프랑켄-텐노는 이격된 시공간을 압착시키는 살아있는 힘으로서 생생히 발현 중이며 유훈체제의 중핵으로서 여전히 집무실에 앉아 있는 중이다. “그 서사는 1970년대 이후 발전한 가족국가와 유격대국가의 미학을 꽃피운다. 과거와 현재를 몽타주하여 옛 만주 빨치산의 도덕성과 오늘날 북한의 정치적 가족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시민윤리 사이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혁명운동의 위기라는 옛 사건과 혁명국가의 생존에 도전하는 새로운 위기 사이의 연속성을 재확

인시켜준다.”<sup>29)</sup> 김정일의 1996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제시된 ‘고난의 행군 정신’은 1990년대 전체에 걸친 국가적 위기사태, 곧 소련 및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와 미국의 경제 봉쇄책에 의한 고립, 국부 김일성의 사망, 1995년도 대홍수에 따른 대규모 아사의 상황에서 인민이 가져야 할 집합적 품성을 1938년 김일성 항일 파르티잔의 혹한기 100일 행군의 상황과 맞물린 것이다. 그것은 선군의 정신무장 서사인바, 그런 군사적 품성·에토스는 다름 아닌 성부+성자에의 신앙, 즉 아버지·주의 유희를 받잡은 아들·주에 대한 신앙심에 뿌리박은 것이다. 현재의 구원을 위한 과거와의 ‘몽타주’, 그 꽃피워진-미학화된 시간압착의 메시아주의적 방법은 윤리·미·정치라는 보로메오 매듭으로 얽어 만들어진 성부+성자 이위일체의 피 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몽타주적 유희의 괴기성, 압착된 피로 신진대사하는 프랑켄-텐노의 시체·국체. 그것의 위기·전시상태 아래 그 국체를 이루는 인민의 생활과 정신 모두는 그같은 시간적 몽타주의 구체적인 물질화를 위해 총동원되었다(죽은 성부가 집무를 볼 ‘금수산기념궁전’, 조선로동당창건기념탑, 혁명국가의 고대사적 근원으로서의 ‘고구려 역사기념물’, 고속도로 건설 등이 그런 물질화의 사례들이다). 성부의 죽음에 대한 국가적 애도와 죽은 성부의 영생에 대한 거국적 찬가 아래 인민의 현재는 과거의 영광으로 분식되고 미래적 국체의 빛 아래로 들어간다. 그

29) 권현익, 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256. 이 책의 저자들이 참조하고 있는 와다 하루키는 1930년대 후반 김일성의 ‘고난의 행군’과는 달리 “탈출구로서의 소련”이 해체된 1996년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은 전망이 없는 정신이다”라고 말한다(和田春樹(1998). 北朝鮮 遊撃隊國家の現在. 서동만, 남기정 옮김 (2002).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파주: 돌베개, 264) 미래적 전망이 어둡기에 과거의 영광을 조달해 올 필요가, 그 필요의 긴급성이 생겨난다. 그같은 영광의 발현체로서의 유희와 관련하여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와다가 인용한 다음 한 대목 속 ‘혁명의 혈통’, 다시 말해 그 혈통과 맞물려 있는 지배의 정통성이 혁명의 이름 아래 구축되고 있는(과거로 소급되고 있는, 현재로 소환되고 있는) 지점이다: “고난의 행군” 정신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혁명의 수명을 결사옹위하는 정신이다. [...] 전당[全黨]이 7련대[聯隊]가 되고 전군이 7련대가 되며 전민[全民]이 7련대가 되는 여기에 ‘고난의 행군’ 정신의 빛나는 계승이 있고 우리 혁명의 혈통이 깨끗이 이어져 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자, 로동신문, 1996년 2월 7일자, 1면 사설, 와다 하루키, 같은 책, 263에서 재인용).

런 한에서 메시아주의적 유훈의 몽타주성, 몽타주적 유훈의 메시아주의성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찬가(讚歌(Hymne))’가 된다. 물리적 국가수반·성자 김정일은 방부 처리된 불멸의 성부를 노래한다. “아버이 수령님 송가가 없으면 민족의 핏줄이 끊어진다. 수령님 노래를 잃는 것은 민족의 생명도 미래도 잃는 것이다. 수령님 송가가 변함없이 높이 울릴 때 김일성민족의 혈통이 굳건히 이어지고 수령님 대업이 대를 이어 승승장구해나갈 수 있다.”<sup>30)</sup> 과거와 의 몽타주를 통해 구원되는 현재는 성부의 유훈에 대한 찬가를 통해 미래로의 보장을 획득하는바, 그 미래의 형질은 다른 게 아닌 ‘김일성민족의 혈통’ 보존과 그 혈통이라는 정통성에 뿌리박고 거듭 승리하는 유훈의 대정(大政)으로 이뤄져있다. 영원한 ‘태양의 노래’, 곧 성부=태양[아마테라스(天照)]의 유훈에 대한 송가(頌歌), 유훈을 따라 노래할 미래에의 찬가는 ‘김일성 천황’의 사후와 생전을 잇는 초월적이고 초법적인 공통어로서의 ‘민족의 태양’(1974/1994)이 선군 정치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밝혀주는 후광이라는 것을, 그 태양을 우리러보는 단일 혈통의 광합성 상태를, 성부의 그 후광·후견·섭정의 집무실·제단에 현상되는 민족·대가족의 피를, 성부+성자 이위일체의 방부된 피부조직 아래에서 순환하는 혈류를 표시한다. 유훈에의 찬가를 부르는 집단의 품성, 혹은 피를 현상하는(피로써 익찬하는) 갈채의 일사불란한 품행. 말하자면, 유훈체제라는 갈채정체(Akklamation-Regierungsform,<sup>31)</sup> 그것이 정통성 레벨과 결정 레벨에 자리한 두 국가수반, 두 국가적 머리로 한 몸이 된 프랑켄-텐노의 유훈체제를, 그 구원적 유훈에 의해 절단·가공·합성되는 과거·현재·미래 간의 관

30) 김정일, 태양의 노래는 영원합니다, 노동신문 2008년 4월 17일자(극장국가 북한, 52에서 재인용). “김정일은 순례 경험을 바탕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라는 노래를 썼다고 하는데, 이 노래는 그후 ‘어디에 계시니까 그리운 장군님’이라는 한국전쟁 배경의 기존 인민가요와 함께 유훈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혁명가요가 되었다.”(극장국가 북한, 같은 곳)

31) 그 한 가지 사례로서, 최인훈의 청소년기 북조선 경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인민 보고대회’라는 정치의례, 밀실화된 광장의 운명을 통해 재생산되는 유사-민주주의의 유령적 체제를 들 수 있다. “철용성 같은 북반부의 민주기지라는 허깨비 속에서 당신들이 보고대회 때마다 만들어내는 인민의 단결이 허깨빈 것처럼, 모두 허깨비입니다”[최인훈 (2008). 『화두』 2권, 151]

계형식을, 한반도 북쪽에서 연장되고 있는(그렇게 곧 부활하게 될) 제국의 잠재적 형세를 관통하고 있다.

그같은 구원적 유희체제의 시간합성, 그 속에서 이뤄지는 찬가·갈채의 유희적 성분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한 한 문장을 작가 최인훈에게서 찾으면 다음과 같다. “유예된 처형의 시간을 산다는 것은 현재의 확실한 평화를 값아 먹는다.”<sup>32)</sup> 일본어 독서 속의 도스토옙스키로부터 발원하는 이 한 문장은 6·25로 월남하기 전까지 한반도 북쪽에서 소년기를 보낸 최인훈의 기억이 집약된 것으로, 해방 이후 중학교 소년단 조직에서 발군의 글쓰기 활동을 했던 그가 이른바 ‘자아비판’의 당사자로서 악역을 맡지 않으면 안 되게 됐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북조선 혁명국가의 정통성을 집체 교육하는 학교가 혁명보위의 산실일 수 있는 것은 학교가 그같은 정통성·정당성의 바깥에 대한, 그러니까 이단자 혹은 배교자에 대한 색출·교도·산출·유도를 행하는 재판정·감옥·실험실이자 정통·이단의 경계선상에서 부과되는 역할들의 리얼한 가체험 무대로 기능할 때이다. 내면적 품성과 외적인 행실을 판별함으로써 혁명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 하는 학교라는 공간, 그 (법적인·신학적인) 심판의 시공간을 관장하는 힘의 형태가 소년단 ‘지도원 선생’을 통해 표상된다. “간부 친구들 뒤쪽에 앉아 있는 그의 얼굴은 위엄이 있고 차고 매섭게 보였다. 젊은 혁명검찰관이 앉아 있었다.”<sup>33)</sup> 교실이라는 심판정에서 학생·피고에게 내면의 죄와 죄의 내면을 자백·고백시키는 선생·혁명검찰관. 이 자아비판회의 법정 상황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 속에서 의미심장해진다.

모든 곳에서처럼 이런 곳[=자아비판회]에서도 스페인의 시골구석 이단심문소의 담당 승려는 자신을 로마에 있는 교황과 구별하지 못하였다. 그럴 것이었다. 그 순간에 중개인이지만 피조물인 승려의 육체가 스페인의 촌구석과 로마에 갈라져 있을 뿐 하나이신 신은 그 두 곳 모두에 꼭 같이 임하시는 신이었기 때문이다.<sup>34)</sup>

32) 최인훈 (2008). 『화두』 1권, 서울: 문학과지성사, 80.

33) 최인훈 (2008). 『화두』 1권, 46.

시골 사제의 육체와 로마 교황의 육체라는 분리된 두 몸은 유일한 신을 통해, 스페인의 시골과 로마에 함께 임재하는 그 신의 위광 아래에서, 신의 그 빛·뜻을 매개하는 등질적<sup>等質的</sup> 힘으로서 마치 한 몸과도 같이 되며, 그렇게 돌이면서 하나인 몸으로 신의 그 뜻·힘을 반잡아 결핵하게 된다. 널리 빈틈없이 임재하고 있는 신 아래 돌이면서 하나인 그 이접적 신체들은 신의 보편적[Catholic] 질서를, 세계에 대한 섭리적 섭정[the agency of Providence]을 다름 아닌 이단심문·혁명재판이라는 신학적·법적 형식 속에서 대행한다. 그렇게 이단과 배교의 아나키가 신적인 정통·질서의 필요에 따라 판별되고 푸닥거리된다. 예컨대 저 시골 소년단 지도원 선생은 평양의 수령과 이접된 일체인 바, 동급생 간부들의 뒷자리에 위엄어린 얼굴로 앉은 그 선생·이단심문관·혁명검찰관 앞에서(그같은 위계적 자리배열 앞에서) 피의자로 출두하여 내면의 고해를 행하게 되는 자아비판회의 상황이란 신의 섭리적·섭정적 다스림의 구도가 근본모델로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 반복의 실행자가 신의 매개자이자 피조물이라고 할 때, 달리 예컨대, 한반도 북쪽의 유훈체제를 표시하는 이름으로서의 프랑켄-텐노가 지하 총독의 경륜과 인도를 참조하고 뒤따르게 될 때, 그렇게 온전히 총독의 피조물·크리쳐[Viceroy's creature]가 될 바로 그때, 총독의 비밀화된 경륜은 비로소 자유재량적인·진정한 섭정의 텍스처를 짜낼 수 있게 될 것이었다. 도래할 그 시간과 접선하는 모든 지하적·비밀적 계기들을 지속할 때만이 총독은 신의 진정한—신과의 사이에 제3자적 불순물 없는, 이위일체적인, 그렇기에 순수하게 자유자재한—섭정자로서, 전후 현상 유지적 평화의 수호자[Defensor Pacis] 아닌 제국=신국의 부활과 함께 도래할 평화의 창설자·크레아토르[Creator Pacis]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주제어】** 유훈통치, 섭정, 국상정치, 주권면책, 권위의 미스터리(비밀/신비)화

[참고문헌]

- 구재진 (2004).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타자화 전략과 탈식민성: 「총독의 소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3, 157-180.
- 권보드래 (2012). 중립의 꿈 1945~1968: 냉전 너머의 아시아, 혹은 최인훈론을 위한 시론.  
상허학보 34, 261-313.
- 권현익, 정병호 (2013). 극장국가 북한. 파주: 창비.
- 연남경 (2015). 냉전 체제를 사유하는 방식: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3, 47-76.
- 장문석 (2018). 최인훈 문학과 아시아라는 사상. 서울대 박사논문.
- 전상숙 (2005). 식민지 조선 행정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정치적 자율성'. 일본연구논총 21,  
281-310.
- 전우석 (2015). 유훈통치(遺訓統治)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북한헌법 전문(前文)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권 2호
- 차승기 (2018). 전쟁합리성과 식민주의. 역사학보 제238집, 1-29.
- 최인훈 (1967). 總督의 소리. 서울: 신동아.
- \_\_\_\_\_ (1968). 總督의 소리 II. 서울: 월간 중앙.
- \_\_\_\_\_ (1968). 總督의 소리 3. 서울: 창작과비평.
- \_\_\_\_\_ (1976). 總督의 소리 IV. 서울: 한국문학.
- \_\_\_\_\_ (2008). 화두 1권.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2008). 화두 2권.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일성주석과 선군 (2008). 출처: '내 나라(NENara)' 홈페이지[<http://www.kcckp.net/ko/event>].
-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1974).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974~1977) 3권 (198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 (1998). 1998년(주체 87년) 9월 5일 최고인민  
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 의한 수정·보충판. 출처: '내 나라(NENara)' 홈페이지  
[<http://www.kcckp.net/ko/great/constitution.php>].
- Schmitt. C. (1970). Politische Theologie II: Die Legende von der Erelidigung jeder  
Politischen Theologie. 조효원 옮김 (2019). 정치신학 2: 모든 정치신학이 처리되  
었다는 전설에 대하여. 서울: 그린비.
- 文部省 編纂 (1937). 國體の本義. 東京: 文部省教学局.
- 幣原内閣 (1945). 戦争責任等に関する件(閣議決定, 1945. 11. 5). 栗屋憲太郎 編 (1980),  
資料 日本現代史 2: 敗戦直後の政治と社会 (1). 資料 89. 東京: 大月書店.

- 追水久常(1989). 昭和の御聖断. 日本を守る国民会議編(1989), 聖帝: 昭和天皇をあおぐ.  
 東京: 日本を守る国民会議  
 \_\_\_\_\_(1955). 終戦の真相. 道德科学研究所.  
 児島襄(1975). 天皇とアメリカと太平洋戦争, 東京: 文藝春秋 1975年 11月号.  
 丸山眞男(1946). 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 東京: 世界 5号(1946年 5月).  
 \_\_\_\_\_(1985). 政事まつりごとの構造: 政治意識の執拗低音, 丸山眞男集 第12卷(1996), 東  
 京: 岩波書店.  
 東條英機(1943). 第81回議會衆議院戦時行政特例法委員会 発言, 1943. 2. 6. 朝日新聞 速記  
 西田幾多郎(1943). 世界新秩序の原理, 西田幾多郎全集 第十二卷(1966), 東京: 岩波書店.  
 伊藤博文(1889). 帝國憲法義解, 東京: 國家學會.  
 豊下楯彦(2008). 昭和天皇・マッカーサー会見. 권혁태 옮김(2009). 히로히토와 맥아더.  
 서울: 개마고원.  
 和田春樹(1998). 北朝鮮 遊撃隊国家の現在. 서동만, 남기정 옮김(2002). 북조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파주: 돌베개.

## [국문초록]

이 글은 최인훈의 연작 「총독의 소리」에 담긴 정치적 상상력을 씨줄로 삼아 제국 일본과 한반도 북쪽의 ‘유훈통치’를 검토한 것이다. 분석의 과정에서 독재정이나 과두정과는 다른 ‘섭정(攝政)’ 개념을 도출·구성해가면서, 먼저 천황으로의 접근 및 지근거리라는 문제, 즉 천황·정통성·권위의 문고리에 손이 가닿을 수 있는 통로와 앞방(vorraum)의 독점을 둘러싼 비밀화된 투쟁의 문제를 다루었다(I장). 이어 최인훈의 조선총독이 말하는 “김일성 천황”이라는 관점을 1994년 최고권위의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곧 베버적 카리스마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조치체제로서의 ‘유훈의 국상(國喪)정치’라는 맥락과 더불어 분석했다(II장). 그리고 거기서 제시된 두 국가적 머리, 즉 형이상학적 수반(김일성)과 물리적 수반(김정일)이 이접(離接)된 상태가 카리스마적 권위·정통성을 항시 낮설고 생생한 신비·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자 지배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효력의 발원지임을 분석했다(III장). 이를 ‘김일성 천황’이 자신의 체제의 근거로 삼았던 제국 일본의 패전 직후 상황과 연결시켜, 히로히토 천황의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중심으로 맥아더와 히로히토의 동상이몽적 면책 합작을 분석했다(IV장). 끝으로, 그런 합작의 근원적 폭력연관을 검토하는 한 가지 경로로서, 방부 조치됨으로써 불멸의 산 주검이 된 ‘김일성 천황’의 죽은 신체와 국체가 일체화되는 과정을 분석했다(V장).

[Abstract]

## Regent of Dying Instructions

- Using Choi In-hun's Novel *Voice of the Viceroy* as a Medium

Yoon, Inro (NRF)

This article analyzes Ruling with the dying instructions of imperial Japan and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using the political imagination contained in Choi In-hun's Novel *Voice of the Viceroy* as a medium. In the process, the concept of 'regency', which is different from dictatorship or oligarchy, is derived and constructed. The issue of access distance to the emperor, that is, the passage through which the hand can reach the doorknob of the emperor, legitimacy, and authority, and the issue of the secret struggle over the monopoly of the waiting room (vorraum) were first dealt with(Chapter I). Next, the perspective of 'Emperor Kim Il-sung' presented by Choi In-hun's viceroy is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crisis of the death of the highest authority. Furthermore, such a point of view of the viceroy will be analyzed along with context of the 'politics of state funeral' as an emergency measure to overcome the suspension of Weberian charisma(Chapter II).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inoculation between the two heads of state presented there, that is, the metaphysical head and the physical head, is a way to keep charismatic authority in a state of mystery and the effect of immunity(Chapter III). This is in line with the situation right after the defeat of Japan, the empire imitated by 'Emperor Kim Il-sung.' In this context, the postwar collaboration between MacArthur and Hirohito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words of Emperor Hirohito, that is,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rule'(Chapter IV). Lastly, the fundamental violence of such a collaboration was analyzed again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body of 'Emperor Kim Il-sung', who was preserved as an immortal body with the state(Chapter V).

**[Keywords]** Ruling with dying instructions, regency, politics of state funera, sovereign immunity, mystery of authority

논문투고일: 2023년 02월 26일 / 논문심사일: 2023년 04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9일

【저자연락처】 [inro@naver.com](mailto:inro@naver.com)